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0월 11일(주일) 제1069호



교회, 지역사회, 유관기관 하나 된 '어우러짐 한마당' 모든 성도가 통일과 북한 위해 기도한 '민족 사랑의 장(場)'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창립 30주년 축제는 온누리교회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지역사회, CGNTV, 온누리 선교유관

기관 등이 하나 된 어우러짐 한마당이였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과 북한을 부르짖은 민족 사랑의 장(場)이었다. 역시 온누리다웠다.

4일에는 CGNTV 정기후원 행사가 열렸다. 대중교통 이용해 교회에 오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도 실시되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

으로 주일이면 혼잡하던 교회 앞 도로가 속 시원하게 뚫렸다. 정체도 없고, 불법 주차도 없었다. 22개 온누리 선교 유관기관은 선교의 새로운 트렌드 융합선교를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일부터 8일까지는 부흥비전집회가 열렸다. 새로운 비전 '예수바보 행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회적 관점에서 살펴본 집회였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 연약한 교회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9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창립 30주년 'Celebration'과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가 열렸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모인 8,000여 명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 통일, 다음세대를 위해 부르짖었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 타교회 성도와 지역주민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택시기사 조무웅 씨는 "지역사회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 교회는 온누리교회가 처음"이라고 했다. 타교회에 다니지만 온누리교회의 선교 열정에 감동 받아 선교헌금, CGNTV와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을 하고 있다는 이시숙 성도는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7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 정기후원자 2만 6천명 돌파

정기후원행사 4,100여 명 약정서 제출

CGNTV 정기후원자가 2만 6천명을 돌파했다. 지난 4일 실시된 '2015 CGNTV 정기후원행사'에서 4,100여 명이 CGNTV 약정서를 제출했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온누리'와 함께 만든 10년의 감동, 온누리'와 함께 만들 10년의 비전'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신규 후원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증액 후원은 지난해 대비 1.5배나 증가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열정과 CGNTV 임직원들의 땀과 눈물이 맺은 열매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방송, 생명을 구하는 방송으로 발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도들이 약정한 CGNTV 후원금은 연간 6천 여 편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170여 개국 방송을 위한 위성 빔 사용 지원제작비 등으로 사용된다. 정기후원 행사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도 CGNTV 후원자가 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 후원코너를 클릭하면 정기후원이나 일시 후원을 선택할 수 있다.

후원문의: 02-796-2243

〈온누리행전 30년〉 발간

홈페이지에서 PDF파일 제공

온누리교회 3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책 〈온누리행전 30년〉이 발간되었다.

교회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발간된 〈온누리행전 30년〉에는 온누리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담겨있다. 교회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온누리교회가 품었던 비전, 사역, 성도들 이야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온누리행전 30년〉은 온라인상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누리행전 30년' 배너를 클릭하면 PDF 파일을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QR 코드를 이용하면 영상도 볼 수 있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거라”

가출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 선물하고 있는 박신명 성도

“다른 어른들은 저희 때문에 질려서 도망가는데, 선생님은 우리가 좋으세요?”

박신명 성도(온누리M미션)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출한 소녀들의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사랑도 주고, 도전도 준다. 가정·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은 그녀를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 쓰라린 아픔도 치유된다. 박신명 성도는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 중장기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단기간 동안 머무는 곳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찾아주고 있다. 그녀의 특별한 삶을 들여다 봤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한 소녀의 꿈은 피아니스트다. 그 소녀는 한 때 방황의 늪에 빠져 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 소녀가 박신명 성도를 만난 이후 달라졌다. 박신명 성도는 그 소녀가 잃어버린 재능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그 소녀는 박신명 성도가 일하고 있는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 온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바뀌었다. 박신명 성도는 그 소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그 소녀는 최승연(19세, 가명) 학생이다. 승연이는 유난히 반항이 심했다. 박신명 성도에게 처음으로 대든 학생이었다.

승연이는 쉼터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핸드폰만 만지던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은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취업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승연이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신명 성도는 그런 승연이가 피아노 치는 것을 눈여겨봤다.

승연이는 어릴 적 정신분열이 있던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다. 승연이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학대도 당했다. 동네 사람들이 보육원 시설로 보낼 정도로 심각했다. 승연이는 어머니가 정신분열이 생기기 전에 피아노를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피아노 선율만이 승연이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통로였다.

승연이의 피아노 재능을 눈여겨 본 박신명 성도는 피아노 연주 경험을 위해 온누리M미션에서 주최한 작은 연주회에 데려왔다. 그렇게 온누리교회에 온 승연이는 우연한 기회로 원우현 장로와 만나게 되었다. 원 장로는 승연이를 도와 줄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일까. 승연이에게 계속 새로운 길이 열렸다. 승연이에게 또 다른 후원자가 생겼다. 연습실 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연습실이 생기고, 후원자도 생기고, 레슨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승연이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박신명 성도가 곁에서 함께 견뎠다.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네 힘으로 개척해봐라.”

승연이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새벽 2시까지 수능시험을 준비했다. 쉼터에서 받

은 용돈을 모아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불철주야 피아노 연주 연습을 하면서 승연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 발로 교회에 나가 신앙교육을 받고,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잃어버린 꿈도 되찾았다. 승연이는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승연이는 19년 동안 얼룩진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쉼터에 오면서 박신명 성도를 만났고 점차 안정된 삶을 찾게 되었다.

승연이처럼 박신명 성도의 도움을 받아 교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지만 후원자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박신명 성도가 일하고 있는 쉼터 가출 소녀들은 대부분 학교와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런 소녀들이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현실감이 떨어진다. 돈, 시간, 삶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가출 소녀들은 단거나 중장기 쉼터를 떠돌

했다. 해외를 오가며 직장생활을 오래했던 그녀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녀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마치고 태국 치앙마이 가나안 농군학교로 선교를 가면서부터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태국 가나안 농군학교 선교사의 사모가 그녀에게 6번이나 메일을 보내 그곳으로 초청했다. 치앙마이 가나안 농군학교는 환경이 열악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좋았지만 먹는 것과 자는 것이 불편했다. 그러다보니 건강이 악화되어 오랜 시간을 버틸 수가 없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태국 음식의 주재료인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 매일 맨 밥만 먹었기 때문이다. 1년 이상 태국에서 지내다 한국에 돌아왔다.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박신명 성도는 우연한 기회에 멘토를 만나게 되었다. 그 멘토는 화가였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시던 아주 고마운 분이였다. 태국에서 우울증에 걸린 19세 정도 된 남자 청소년을 만났는데 그 청소년은 시간만 나면 돌과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그 모습을 보고 문득 멘토님이 떠올랐다. 그 청소년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멘토님을 찾아갔다.

멘토님은 그 청소년을 보고 “그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호평했다. 박신명 성도는 그 청소년을 위해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 청소년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또 다시 탈선할까봐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태국 선교사 부부에게 그 청소년이 태국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녀의 청소년 사랑은 이 정도로 끔찍하다.

박신명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다. 한 순간도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녀는 청소년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한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

그녀의 소망은 이것 한가지다.

“청소년들을 돌보는 건 내 사명이다. 허락된 시간까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 박신명 성도와 청소년 중장기 쉼터 아이들.

회로 인도 받은 청소년들도 적잖다. 쉼터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소녀 지원이(가명)도 그렇다. 지원이는 어릴 적 속초에서 자랐다. 고기잡이를 하던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오빠와 함께 어렵게 살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오빠가 물놀이를 하다 익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지원이는 그 충격으로 탈선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떠돌던 지원이는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 정착하면서 박신명 성도를 만나게 되었다. 지원이는 속초에서부터 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와 물질 후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로 온 지원이가 쉼터에 오면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했다. 그렇다. 박신명 성도는

면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기 쉼터는 최대 6개월을 머무를 수 있고, 중장기 쉼터는 3년~5년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면 성인 쉼터에서 머무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삶을 포기한다.

그런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박신명 성도는 더 호되게 가르치고 있다. 부모처럼 가르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요리프로그램을 열어 아이들과 소통도 시도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파스타 등을 만들어먹기도 하고, 명절이면 송편과 만두 빚는 법도 알려줬다.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공동체성을 길러주고 있다.

박신명 성도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좋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바보행전

사도행전 2:42~47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 주는 것이 예수바보행전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동시에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비전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슬로건입니다. 새롭게 찾은 비전은 ‘예수바보행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바보로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성도들은 사 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 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더 직접적인 의미를 부 여한다면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그리스도께 완전히 몰입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된다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보라고 표현한 것이 불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경쟁, 이기심, 탐욕, 위선적인 삶을 결코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바보로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루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습니 다. 교육을 많이 받지도 않았습니 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자녀도 남기지 않았습니 다. 거의 모든 시간을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과 보냈습니 다. 외면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로 표현되는 세 리와 죄인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 다. 33세의 나이에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바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바보입니다. 자연적인 바보는 지혜와 분

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자기뿐 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의도적인 바보는 자신에게 분명 손해가 되 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 니다. 자신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 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가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의도적 바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도적 으로 바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으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왜 버리셨습니까. 바보 같은 선택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도적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바보 같은 선택입니 다. 불의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땅 한데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하나님의 진노 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는 일입 니다.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대신 죽는 바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끝까 지 사랑하고, 포기 하지 않았습니 다. 경쟁 중 심적이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가차 없이 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십자가의 길

사도 바울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의 바보 같은 선택을 깨달을 때에만 복음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 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 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 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 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 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 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 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 나

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 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 문입니다”(고전 1:21~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 다. 감히 하나님께 어리석다는 단어를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 주를 통치하시는 지혜의 근원이며, 지혜가 충 만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어리석음이라는 단 어를 붙인 것이 타당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 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썼 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요. 십자가 는 세상이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었습니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 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 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 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 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고전 3:18~20).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 입니까.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 은 모두 자기 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 국 그 꾀에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 기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 라고 권면합니다. 자연적인 바보가 되라는 것 이 아니라 의도적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자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성육신의 길입니다.

‘예수바보’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세계를 뒤집 어 놓은 스티브 잡스는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연설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 습니다. 그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그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다른

가정에 입양 될뻔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학 에 들어갔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두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 들어갔지만 쫓겨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 였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인 문구를 설명했습니다. 그 문구가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Stay hungry’는 굶주린 상태로 머무르라 는 뜻입니다. 갈망 속에 머무르라는 것입니 다. ‘Stay foolish’는 어리석은 상태로 머무르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대학 졸 업식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어리석은 자 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움 직였고, 오늘의 자신을 만든 비결이라고 했습 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 까요. 저는 그가 말한 문구는 성경적인 가치 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난 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재산이 있 고, 조금만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금방 배고 품이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지혜롭다고 생각 하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 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 람이 나를 바보로 여길까봐 툭툭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 리석어 보이는 길을 갑니다. 이것이 스티브 잡스를 움직였던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 았습니 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 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 렇다면 예수바보가 누구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 다”(42절).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필 요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 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 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 로 보기 위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을 배우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 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로 보는 시각 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13면에 계속)

부흥비전집회 메시지

위험한 교회, 낮아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되는 ‘예수바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이 새로 주신 비전은 ‘예수바보행전’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바보행전이다. 어떻게 하면 온누리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되는 ‘예수바보’가 될 수 있을까.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부흥비전집회에 그 해답이 있다. 부흥비전집회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를 요약했다. / 편집자 주

인생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했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너무나 위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매우 위험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위험 때문에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님께 진짜 순종하면 매우 위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 세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위험보다는 안전, 담대함보다는 조심스러움, 사명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바벨론 포로시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개신교가 핍박 받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중국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핍박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직도 없고, 제도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절박함과 선교적 사명감

어떤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까. 첫째,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거룩한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네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매고 왔습니다.

사람이 짊어져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야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을 뚫는 교회가 바로 위험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지붕을 뚫는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한 교회입니다.

둘째, 위험한 교회는 선교적 사명감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위험한 교회는 아닙니다. 선교적 사명이 없으면 어쩌면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도피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감이 없으면 교회다워지지 못합니다.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코뮤니타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뮤니타스는 더 강렬한 사명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community(공동체)가 아니라 코뮤니타스가 되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코뮤니타스, 위험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

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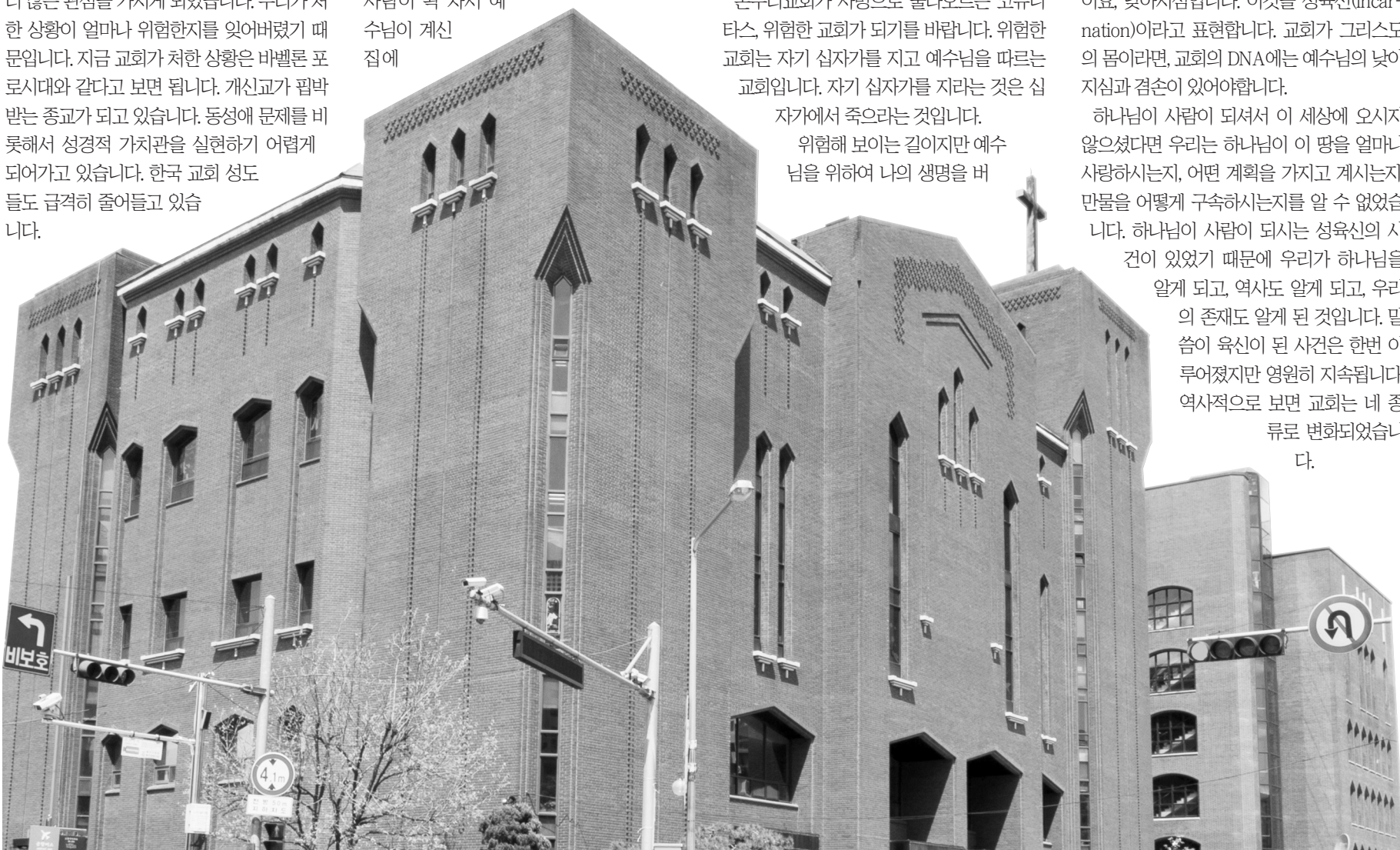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교회는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을 믿습니까. 이런 각오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안일한 삶에 집착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성육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생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원리는 예수님의 겸손이요,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을 성육신(incar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DNA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물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사도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한번 이루어졌지만 영원히 지속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네 종류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 연약한 교회

첫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missionary church’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다양한 사역을 하는 ‘ministry church’입니다. ministry church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제도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셋째, 유지하기에 급급한 ‘maintenance church’입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과 시대적 책임 보다 자신의 문제와 교제에 몰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머지않아 네 번째 교회가 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museum church)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와 멀어져버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성육신적인 교회는 결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교회가 바로 성육신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찾아오신 교회가 바로 성육신적인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성육신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탈피하고,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의 문화를 등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세상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위하여,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육신적인 교회, 낮아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교회, ‘unto christ’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성육신적인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낮아진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만나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를 대하듯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unto christ’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위하여(for christ)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보살피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성장은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

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처럼(like christ)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지 않고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육신적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like christ’의 정점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쓰임 받는 교회

연약한 교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역설적 진리로 교회를 설명한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한 교회가 되면 무너지고, 깨지고, 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사회는 지도자가 아프고, 연약하면 무너지지만 교회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안에서 더욱 강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 액수가 높아지면 목회자가 교만해지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능력은 많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깨지고, 감정이 깨지고, 사랑도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많은 수의 군중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진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회적인 힘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도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뜻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다. 연약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연약하게 못 박히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는 역경이 장점으로, 깨어짐이 아름다움으로, 위기가 기회로

연약한 교회는 역경이 변해 장점이 됩니다. ‘adversity’가 변해 ‘advantage’가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역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장점이 됩니다. 또 깨어짐이 변해 아름다움이 됩니다. ‘brokenness’가 ‘beauty’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아름다움이 됩니다. 선천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은 깨어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상처 받아본 적 없고, 깨어진 적 없고, 고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패배자로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엎드리는 것이 승리자와 더 아름다운 정복자가 되는 길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crisis’가 ‘chance’가 됩니다. ‘chaos’가 ‘creativity’가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더 귀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모든 종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에 처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시어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천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취하여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천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 받아 쓰임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비참합니다. 멸시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자랑할 만한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약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스스로 강한 교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더 깊은 헌신과 열심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물에 녹아버린 소금처럼 촉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교회는 소금처럼 녹아 없어지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역시 온누리교회가 하면 뭔가 달랐다. 정말 특별한 축제 한마당이였다. 화려한 세리머니가 있어서 특별했던 것이 아니다. 유명 인사들의 축하메시지가 쏟아져서 특별했던 것도 아니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가 특별했던 이유는 온누리교회만의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교회 창립 30주년 생일날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더 배려하기 위해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벌였다. 또 부흥비전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결단했다.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는 통일과 북한을 위해 부르짖었다. 그 아름다웠던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 편집자 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창립기념주일이었던 지난 4일 CGNTV의 정기후원약정 행사가 국내 10개 캠퍼스에 걸쳐 일제히 실시되었다.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에 기입하거나 각 캠퍼스에 설치된 CGNTV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년 동안 모은 드림통(저금통)을 기부하고 새 드림통을 받아가는 성도들도 눈에 띄었다. 4,100여 명이 CGNTV 정기후원 약정서를 제출했다. CGNTV 정기후원자가 2만6천명을 돌파했다.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사회선교부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벌였다.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는 운동을 말한다. 이날도 많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졌다. 주일이면 혼잡하던 교회 앞 도로가 속 시원하게 뚫렸다. 정체도 없고, 불법주차도 없었다. 교회는 성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택시승강장도 마련했다.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복한 캠페인에 동참한 성도들은 평소에도 실천해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2000선교 융합선교 부스 설치

이천만 광장에서는 22개 온누리 선교 유관기관들이 총출동했다. Acts29 비전빌리지, BEE KOREA, CGNTV, CMN, KIBI, SWIM, TIM, 가정사역본부, 대학청년부, NGO 더멋진세상, 두란노서원, 러브소나타 본부, 북서아프리카 융합선교팀, 아버지학교, 에셀선교회, 여성사역, 영어예배, 온누리M미션, 일대일 위원회,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창조과학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 현장인터뷰



“나는 선교지에서 바보행전을 쓰겠습니다”

/ 신동빈 성도(OSOM 25기 훈련생)

‘예수바보행전’이라는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주신 새 비전을 듣는 순간 나도 선교지에서 바보행전을 써내려가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한지 30주년이 됐는데도 안주하지 않고 새 비전을 향해 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바보행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제로 행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 소망을 선물 받았어요”

/ 오귀화 권사(중종로공동체)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새벽예배에 나오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수 바보행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를 20년 동안 다니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번 부흥 비전집회는 저에게 기대와 설렘, 소망을 선물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어김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갈거예요”

/ 박지현 자매(요셉공동체)

‘바보의 사명은 모험을 감행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정말 멋진 역사를 썼어요. 앞으로 30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 바보행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Celebration과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

부흥비전집회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
연약한 교회

10월 6-8일까지는 부흥비전집회가 열렸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새 비전 예수바보행전을 이루기 위해 온누리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 연약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바보행전의 완성이라는 메시지였다.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바로보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는 집회였다.

집회장은 회개의 장이었다. 그동안 예수바보로 살지 못했다고 통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본당을 가득 메웠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바보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했다.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창립 30주년 Celebration
울어라 한반도여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의 대미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Celebration과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가 장식했다. 170여 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온 8천여 명의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통일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남녀노소,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 되어 어우러졌다. 나라와 민족, 교회, 통일, 다음세대를 위해 전심으로 드린 기도소리가 드넓은 평화누리 공원을 가득 채웠다. 분명 임진강 너머 북녘 땅까지 울려 퍼졌다.

■ 인터뷰



“기대가 큼니다”

/ 엄복례 성도(미국 휴스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국 휴스턴에서 왔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집회에 참석했어요. 현재 미국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가슴이 많이 아파요. 미국에서 누리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꼈어요. 예배의 소중함이랄까요. 온누리교회가 써내려가는 예수바보행전은 성령 안에 낮아진 자리로 나아가는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온 열방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예수바보행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 임병훈 집사(CMN)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CMN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CMN에서 <바보행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사진집 같은 의료사역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을 <바보행전>이라고 지었는데 온누리교회의 새 비전이 ‘예수바보행전’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CMN이 더욱 분발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CMN이 하고 있는 의료사역은 의료진과 중보팀, 이미용팀, 봉사자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 오명순 권사(이수공동체)

‘전 오늘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교회창립 30주년을 맞아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수를 드시며 교제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특히 이번 30주년 행사를 위해 솔선수범하신 권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권사회가 성도들을 어머니 같이 보듬어주고 교회의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역동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또 하나의 예배공동체 만든다

그제가 569돌 한글날이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국경일을 보냈다. 이 뜻 깊은 날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온누리M미션 소속 한글학교팀이 그 주인공이다.

매주일 정오가 지나면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가 시끌벅적하다.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려는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오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한국에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다. 아예 한국에 정착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언어다. 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 온누리M미션 소속 한글학교팀은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들을 놓치지 않는다.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이기 때문이다.

환풍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세르조디(29세, 우즈베키스탄)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모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한국생활 적응이 녹록치 않았다. 무엇보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절실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친구로부터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소개받았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팀은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뿐만 아니라 전도도 했다. 모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러시아어예배로 인도했다. 세르조디씨 사례처럼 한국어를 배우려고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찾았다가 예수를 만난 이주민들이 늘고 있다.

네팔에서 온 이슈왈라이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머리 뒤쪽에 큰 종양이 생겼다. 의사는 그에게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고국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이승희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만든 한글교재들.

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꿈이 수포로 돌아갔다.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 시력까지 잃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찾았다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온누리M미션 네팔어 예배에서 예수를 만났고, 지금은 고국으로 돌아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한국어 실력이 생계와 삶의 질 결정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주민들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자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주민이 되었다. 한국사회도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은 144만 명이 넘는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2.8%에 해당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 36%(52만여 명)가 근로자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찾아오는 이주민들도 대부분 근로자들이다. 그들은 언어실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 남자는 건설업, 플라스틱 공장, 옷 공장, 화학제품 제조업 공장, 환풍기 제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자는 베타이 만드는 공장, 옷 공장에서 단추 달기, 식당 등에서 일한다. 그들에게 직업은 생계와 직결된다. 직업을 결정짓는 한국어 실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어 실력이 초급이면 다들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중급 이상이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다. 한국어 실력이 상급이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어 교사나 교수, 통역관으

로 활동할 수 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한국어 전문교사는 더 적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에게 직접 한글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친근하다. 한국어 양성과정을 수료한 교사가 절반이 넘는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는 이주민들에게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의 예배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믿고 맡겨도 좋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의 산증인 김정숙 권사와 이승희 교사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는 1997년 처음 문을 열었다. 외국인, 문맹인,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시작했다. 김정숙 권사와 이승희 교사의 헌신이 지금의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있게 했다. 김정숙 권사는 1997년 처음 온누리교회에 왔다. 홍콩에서 거주하면서 이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졌다. 자신도 이주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온누리교회에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모임이나 사역이 따로 없었다. 김정숙 권사는 그 때부터 이주민들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을 알리고, 한글을 가르쳤다. 서울 시티버스, 고궁 관람, 미술관, 한식당 등지를 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승희 자매는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교사다. 올해로 18년째다. 그녀는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며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한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글책도 발간했다. 그 책으로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그 한글책은 초급-중급까지 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 온 이주민들에게 한글의 가르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칼럼 김정숙 권사(서빙고공동체)

홍콩에서 주재원 가족으로 살다 서울에 왔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섬긴 지 15년이 흘렀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시작할 무렵부터 몸을 담았으니 이곳을 거쳐 간 학생들에 대한 추억도 많이 쌓였다. 교실 이사도 여러 번 했고,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를 섬길 무렵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이는 이승희 선생님 한 분 뿐이다. 일부 학생들 중에 여자 선생님에게 흑심을 품는 일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교사로 섬겨줄 것을 부탁했다. 그렇게 함께 섬긴지가 벌써 10여 년이나 된다. 그 시간이 참 감사하다. 남자 선생님이 서너 명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사 15명 중에 남편이 유일한 청일점이다. 교장선생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는 한국어 과정을 공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많다. 그 때

문에 매주일 한 시간 반만 공부해도 학생들이 실력이 날로 늘고 있다.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더 큰 바람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아졌다. 한글학교 분위기가 명랑해졌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좋아요> 등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간 만났던 학생들이 생각한다. 한국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한국 남자를 소개해도 거절했던 캄보디아 소파리 자매는 이화여대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이다. 사회사업가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 지금은 본국으로 돌아가 결혼을 했다고 들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기다나는 부모님과 함께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 나오고 있다. 최근에 동생이 태어나 신이 나 있다. 네팔에서 온 딜과 릴라 부부는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학생이다. 올해

봄에 두 자녀와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민을 떠났다. 네팔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디파자매가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녀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다. 네팔에 있는 동생들을 늘 걱정했다. 한국에서 네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슈왈라이 학생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에 나와 착실하게 한국어를 배웠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때마다 찬양을 불러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다. 지금은 네팔로 돌아가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고 있다. 몽골로 돌아간 시내 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는 몽골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의 꿈이 허황되다고 생각했지만 몽골의 경제발전 위해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잘 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의 바

씨 자매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트리니티 신학생인 진대 전도사님과 결혼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몽골어 예배를 섬겼다.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몽골의 여성 사회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

비록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 교실이 비좁고 수용할 수 있는 학생도 20명 남짓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늘 즐겁다. 신앙도 좋고, 한국 말도 잘하는 훌륭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목회자, 캄보디아 사회사업가, 몽골 대통령, 사회복지노동부 장관 등을 배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기분 좋다. 매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온누리M미션 한글학교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한 선교현장이다. 나는 매주 한글학교에 들어 설 때마다 이웃리치 온 것처럼 마음이 설린다.

우리는 늘 즐겁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다문화 혹은
다종교 국가
미얀마



로지 목사
(온누리M미션)

미얀마에서는 “당신은 미얀마 사람입니까?”라고 묻지 않는다. “저는 버마즈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65%가 버마족이다. 크게 8개 종족으로 나뉘는데 까친, 까야, 까렌, 친, 문, 버마, 라카인, 산 종족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7개 주에 살고, 135개의 부인종(副人種)이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 살고 있다. 다른 사투리를 쓴다. 미얀마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버마즈(미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인종과 종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의 강력한 영향 받은 ‘골든 미얀마’

미얀마는 불교국가다. 버마즈 민족과 다른 부족인 라친, 문, 산은 상좌불교에 해당된다. 상좌불교는 18부와 불교 중 하나를 의미한다. 미얀마의 종교 불교는 이웃국가인 인도에서 몇 세기 전에 넘어왔다. 불교가 미얀마에 들어온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600여 년 전에 이미 불교가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종족은 까친, 까렌, 친 부족이다. 그들은 5%정도의 소수에 해당된다. 다른 종교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애니미즘, 중국 전통 종교들도 있다. 그래서 미얀마를 다문화 혹은 다종교 국가라고 부른다.

미얀마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유명한 유적지를 가면 불탑들로 가득하다. ‘골든 미얀마’ 또는 ‘골든 랜드’라 불릴 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불탑과 절들이 많은 국가다. 또한 불교의 날은 미얀마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연다.

어느 나라든 국가의 종교와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듯이 미얀마도 마찬가지다. 서양 종교라고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부역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기독교 이전에 불교를 먼저 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다. 선교사들이 미얀마에 오면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 사자의 이빨을 뽑는 것 보다 어렵다”



▲ 버마즈 족 전통의상.

까렌, 까친, 친 부족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Adoniram Judson은 “버마즈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자의 이빨을 뽑는 것 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버마즈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는 어르신, 부모님, 선생님, 수도자들이다. 지역사회와 가족, 어른들의 결정과 판단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담자 역할도 대신한다.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16세의 버마즈족의 어린 남자아이들은 불교인이 되기 위해 수도원에 보내졌다. 그렇

게 불교 유산을 배웠다. 이것은 불교에서 순결한 의식을 행하는 ‘서임식’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미얀마 사람들의 의무이자 축복 의식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얀마에 사는 버마즈족이 뿌리 깊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용기가 없다.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난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얀마의 선교가 열매 맺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목회칼럼 김재승 전도사(서빙고 영아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아빠라면 지금 당장 무슨 짓이라도 좀 해봐!”

사람은 누구나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두려움마저 잊게 만든다. 살다보면 구석으로 내몰릴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와

피를 나눈 가족과 관련된 일로 극한의 환경으로 내쫓기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19살 어린 나이에 서울로 상경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 2003년 여름방학 기숙사 공동책장에 꽂힌 비디오테이프를 무심코 틀었다. 영화 한편이 흘러나왔다. 큰 감동을 준 영화다. 그 영화의 제목은 ‘존윅’였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흑인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 아빠와 사랑 넘치는 엄마, 착한 외아들이 주인공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친다. 외아들 매튜가 야구 경기 도중 심부전으로 쓰러진 것이다. 책임감 넘치는 아버지는 아들 매튜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천문학적 금액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가구와 값비싼 물건들을 팔았지만 병원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성금 모금도 했지만 액수가 부족했다. 게다가 수년간 꾸준히 납부했던 보험료도 흑인이라

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을 곳을 구했지만 이마저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절박한 상황에서 매튜의 아빠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절박함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아내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아빠라면 지금 당장 무슨 짓이라도 좀 해봐!”

그 무슨 짓은 병원 응급실 인질극으로 변질된다. 매튜의 아빠는 자신의 아들을 당장 수술을 시켜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응급실을 점거했다. 경찰과 병원 당국은 인질극을 벌이는 매튜의 아빠를 저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모든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 되면서 국민들은 매튜의 가족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아들의 수술을 거부했다. 그러자 아빠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자신의 목숨을 끊기 직전에 아들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며 뜨거

운 눈물을 흘린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버지 사랑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한 주인공의 선택에 모든 이들이 감동한다. 이 영화의 결말은 이렇다. 매튜는 아버지의 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 받는다. 매튜의 아버지는 인질극을 벌인 것이 유죄로 판결돼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선과 악, 법과 질서를 따진다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과 위험한 선택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이 영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선택과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험하고, 연약하게, 낮아지셨다. 이 영화의 주인공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위험하고, 연약하게, 자신을 희생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처럼 위험하고, 연약하고, 낮아지는 나와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30주년 선교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선교기관 연합모임. 27개 선교 유관기관이 모여 융합선교에 대해 나눴다.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

총 275명 참석, '선교사 특별간증' 끝으로 막 내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가 오늘(11일)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에서 선교사들의 특별간증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에는 파송 5년 이상 된 선교사 208명, 선교사 자녀 49명, 현지교회 지도자 18명이 참석했다. 총 275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번 선교대회는 그야말로 '선교사의,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에 의한' 행사였다. 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일 온누리 선교기관 연합모임, 4일 융합선교 홍보 부스 설치, 5일 선교사 수련회, 6-8일 선교 세미나와 30주년 부흥비전집회, 9

일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 10일 열방탁구대회가 이어졌다. 오늘 예배에서는 선교사들의 특별 간증 순서가 있다.

이번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는 선교사들의 영·육·지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수련회와 열방탁구대회를 통해 육체의 힘을, 부흥비전집회와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를 통해 영적인 재충전을, 선교기관 연합모임과 선교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의 선교 트렌드인 융합선교에 대해 공부했다.

최명현 선교사(Acts29 비전빌리지)는 "선교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는 앞으

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경숙 집사(가정사역본부)는 "기도제목으로만 접하던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 뵈게 되어 반가웠다"면서 "앞으로도 보내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과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성도들에게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7개 언어로 드리는 '국제부 연합예배'

피부색, 언어, 출신지 달라도 주 안에서 모두 하나

지난 4일(일) 서빙고 국제부가 연합예배를 드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7개 외국어 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몽골어예배, 러시아어예배, 네팔어예배, 아랍어예배)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연합예배는 연합과이어의 찬양, 림문홍 목사(중국어예배)의 기도, 연합성가대 특송, 간증, 이재훈 목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목사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끼리 뭉치는 것은 또 하나의

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7개 언어 예배부가 더 자주 모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제이미 성도(영어예배)는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오늘 일어난 것 같다. 언어는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고, 요시하라 카오루 성도(일본어예배)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안전위원회 안전교육 실시

서빙고 안전위원회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회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1차 교육은 목회자와 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0월 20일 직원예배를 마치고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도들을 대상

으로 한 안전교육은 10월 18일과 25일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인근 구 골프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안전매뉴얼교육,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26기 이혼자행복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24일부터 5주 동안 진행

이혼자행복학교에서 제2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혼자행복학교는 10월 24일부터 5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화비는 성인 10만원, 어린이 3만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아정체성', '기쁨의 회복으로', '가족의 이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혼자행복학교에는 이혼위기에 놓인 부부나 별거중인 부부, 이혼했거나 재혼을 준비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자녀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초등부, 유치부)도 준비되어 있다.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810032-41305

문의: 김재영 팀장 010-2539-5665

/ 김미림 기자

2015 Acts29 비전컨퍼런스

30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및 비전위원 등 70명 참석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8일 '2015 비전 컨퍼런스'가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중동 등 30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 해외비전교회협력위원회, 당회운영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 컨퍼런스는 윤형주 장로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각 권역별 소개, 지역별 중장기 비전 발표, 해외비전교회협력위원회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며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을 격려했다.



2015 비전 컨퍼런스에 모인 30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비전위원, 해외비전교회협력위원회들.

강의선 장로(해외비전교회협력위원회)는 "말도 다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고 있는 해외비전교회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해외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을 내자"고 했고, 박

신웅 목사(얼바인 온누리교회)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애를 나눈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경적 재정관리 세미나 개최

10월 13일 오후 7시30분 신동아쇼핑 2층

사회선교부에서 '성경적 재정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10월 13일 저녁 7시30분 신동아쇼핑 2층 믿음홀에서 열린다.

성경적 재정관리 세미나에는 재정 관리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기 극복과 건전한 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와 건전한 가계 재정 확립을 위한 지식 나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오이타 기·도·제·목

- 10월 12일(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오이타 전역에 울려 퍼지도록
- 10월 13일(화) 일본의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되도록
- 10월 14일(수) 순교의 피를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 10월 15일(목)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10월 16일(금) 이재훈 목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 10월 17일(토) 모든 출연진과 강사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10월 18일(주일)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이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도록

■ 유아세례 간증



고난은 축복이다

/ 아이: 홍지윤 부: 홍상기 모: 여지희

여섯 명의 딸을 키우는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과격한 분이셨다. 어머니가 차린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상을 엮곤 하셨다. 자주 화를 내셨다. 딸들이 잘못하면 매부터 드셨다. 나의 어린 시절은 참 외로웠다. 늘 자신감이 부족했다.

20살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찬양집회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내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으로 천천히 걸어 오셨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치유해주셨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

29살 예수님을 믿는 남편과 결혼했다. 그리고 첫아이 지성이가 태어났다. 지성이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병원에서 검사를 여러 번 받고, 수술도 두 번이나 받았다. 돌이 지날 무렵부터는 매일 4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의 재활병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아이를 데리고 몇 가지 치료를 받고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다. 호흡기가 약한 지성이를 위해 소아과도 매일 갔다. 밥을 잘 먹지 않아 작고 마른 지성이를 위해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줬다. 잠을 안자는 아이를 안

고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다. 그 힘든 과정을 보내면서 우울증이 생겼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함께 믿음 생활하던 지체들이 지성이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주었다. 많은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만져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성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울증이 사라졌고, 지성이의 언어와 운동발달도 나날이 좋아졌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무게는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친밀해 질 수 있었을까. 동역자들과 함께 주안에서 울고 웃을 수 있었을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난과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잊고 싶었던 상처, 고난, 연약함을 버리는 것 없이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아이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한다.

■ 헬로맘 출산 후 스쿨 수료 간증



/ 정규선 성도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하다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육아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날로 심해졌다.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이 갈등과 미움으로 바뀌어 갔다. 부부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작년 가을 지인의 소개로 ‘헬로맘 출산 후 스쿨’에 참석하게 되었다.

조원들과의 나눔은 정말 귀했다. 그들과의 나눔을 통해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로서의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나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늘 바라기만 하던 나의 사랑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헬로맘 출산 후 스쿨 스테프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 어린이를 데리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 스쿨을 섬기는 모습에서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나도 헬로맘 스쿨 스테프로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은 집에서 육아만 하면 외로움에 고립될 수 있는 나를 헬로맘 스쿨 스테프로 초대하셨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셨다. 믿음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날마다 새로워졌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중보기도가 수시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었다.

이번 ‘성경 속 여인들과 함께하는 브런치 타임’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다. 천막 만드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이 부부의 삶이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남편은 여전히 야근과 잦은 출장으로 지쳐있고, 육아는 고단하고 힘들지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 감사하다.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또한 은혜요, 축복이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하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안에서 교제하는 친구들이 생겨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한다. 나처럼 육아에 지쳐 외로워하며 골방에 갇혀있던 많은 엄마들이 헬로맘 스쿨에 와서 나와 같은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 선교사 자녀(MK)들에게 고한다



/ 이훈 선교사(GMP선교사)

“예수님을 따르라!”

나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다. 15년 동안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선교사가 가족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바로 그 질문이다. 이 질문은 나의 풀리지 않는 숙제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가족과 자녀들은 위험한 자리, 낮은 자리에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다. 나는 선교지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매일 기도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라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꿔 놓는 계기가 됐다. 예수님의 선택은 바보 같지만 너무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자녀(MK, Missionary Kids)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MK들은 부모의 부르심에 순종해 선교지에 간 아이들이다. 그들은 성장기에 빠뜨린 일들을 참 많이 겪는다. 결단코 자신들의 선택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지켜봐야만 했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신음했지만 침묵

의 하나님을 느꼈다. 이유 없이 타문화권에서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MK들이 이렇게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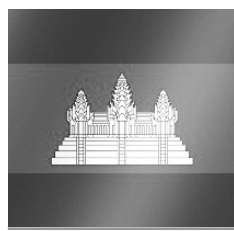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막 15:34).

MK들의 숨겨진 고백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낮아진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를 나의 삶에 적용했을 때와 달랐다. 낮은 자리에서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바로 내가 선교사로 무릎 꿇은 이유다. MK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했다. 인간이다 보니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다.

알려지지 않은 좁은 길,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교회와 선교사, 가정에 필요한 비전이다. 삶과 믿음이 일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외치기를 소망한다. MK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온누리미션 간증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 소잔 소취왓(캄보디아)

나는 캄보디아 남동부에 위치한 타케오 주 출신이다. 한국에 온지 1년 정도 되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를 믿어왔다. 그동안 예수님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누가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싫어졌다.

인생은 내 마음, 내 능력, 내 생각 위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너무 당연하다고 믿었다. 인생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마치 벽에 부딪친 것 같았다. 부모님이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내게 충고를 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무시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부끄럽다.

나는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세상은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과학적인 원리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나는 솔직히 해외 유학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을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외유학을 왜 가야하는지 목적을 찾지 못했

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고향 생각이 간절했다. 어디든 나가서 답답한 기분을 풀고 싶었다.

나는 자리면서 크리스천은 절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내가 슬프거나 기분이 나빠도 교회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나도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나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 주일날에는 다른 성도들과 간증을 나누며 신앙이 더욱 더 깊어졌다. 내 가슴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이 부족하지만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제목을 들어주셨다. 인생을 살면서 걸림들에 부딪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다.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비뚤어진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주셨다.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씻겨주셨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감사하게 살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을 섬기고 싶다.



기고 홍영숙 선교사

CGNTV는 둘도 없는 친구

선교지에서 지내다 보면 보람된 일과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때 CGNTV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공급받는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공급받으면 좋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공급받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 CGNTV는 선교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선교지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다.

방콕에서 라웁으로 이사 온지 10월이면 3년이 되는데 여기에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없다.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방콕을 가지 않을 때에는 CGNTV를 주로 본다. 매일 아침 CGNTV를 보면서 일상을 시작한다.

나에게 CGNTV는 정말 친한 친구다. CGNTV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은혜 받고, 힘을 공급받는다. CGNTV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에서 CGNTV의 역할이 더 큰 것 같다. 한국어로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계절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CGNTV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정말 큰 힘을 주고 있다.

나는 말씀강해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한다. 여기는 한국보다 시차가 2시간 느리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새벽기도회를 시청한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면 말씀강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보고 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다. 그 시간들이 진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다. 고민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 될 때가 있는데 정말 행복하다. ‘나침반’, ‘힐링유’, ‘하늘빛향기’도 내게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CGNTV 말씀 프로그램을 보면서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다. 새겨보고 싶은 말씀들을 메모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한편의 노트를 다 채우면 또 다른 노트를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 적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 노트를 보면서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왜 또 힘들어하지”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

태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CGNTV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태국 사역자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 빨리 24시간 동안 태국어로 하는 방송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CGNTV를 시청했으면 좋겠다. 태국은 기독교 인구가 적어 예수 믿는 것을 감추려고 한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GNTV를 통해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들이 보면 꿈이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비전도 생길 것이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큰 도전을 줄 것이다. 하루 빨리 CGNTV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태국어로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박정란 권사(이촌공동체)

가정을 지키는 마리아가 되자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첫 손주를 얻은 기쁨이 요요했다. 내가 낳은 자녀와 느낌이 사뭇 달랐다. 첫 손주를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껴안고, 쓰다듬으며 찬양하던 시간이 었그제 같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이 말씀은 딸이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묵상했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구절이다. 손주를 껴안았을 때의 사랑과 기쁨, 푸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요즘은 아이들을 데리고 차세대 예배를 찾는 할머니가 됐다. 아직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천국을 맛보고 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다음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사들이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독려해주면서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해 딸이 둘째를 낳았다. 교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니 마음은 조금 무거웠다. 얼마나 복잡하던지 한편으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다. 지난 번 조호영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니를 두고 오래니 마음이 편치 않던 목사님이

언니에게 어머니 병간호를 부탁했다고 한다. 목사님의 언니는 내심 동생이 걱정됐는지 “이제부터 내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게도 가정이 예배의 자리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때 다음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된다는 확신이 든다.

그래서 요즘 나는 바쁘다. 아이들과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이면 영아부 예배에 참석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세대가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손주를 위해 기도해주는 맛에 살고 있다. 차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내게는 다음세대를 위한 두 가지 소망이 있다. 첫째, 차세대 예배 장소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입구에서부터 권사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선생님과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둘째, 차세대를 양육하다보면 팔도 아프고, 힘이 들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핵가족화 되어 가는 이 시대에 더불어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가족들 모두 좋아한다. 이게 정말 행복이 아닐까. 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아이들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자녀가 낳은 손주 육아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는 황혼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유현목 목사(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인간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라

곤경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청해 이루어지는 게 상담이라면, 상담 없는 사회 없고, 상담 없었던 시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곤경 없는 사회나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진정 자유케하는 상담이 무엇일까?

상담은 도움을 주고받는 진솔한 인간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누구나 상담가일 수 있다. 특히 목회자는 상담자가 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나는 읍기를 통해 내담자가 진정 기대하는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읍기는 인생의 지혜서로 혹은 신정론에 관한 신학적 논설로 아니면 먼 옛날 고대 근동의 문학 장르의 하나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읍기를 하나의 상담 사례로 보고 싶다. 실패한 상담 사례로 진정한 상담이 무엇인지를 반증하는 책이 바로 읍기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 읍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만났다. 이 소식을 들은 읍의 세 친구들이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다. 친구들은 슬픔과 연민 속에서 7일 밤낮 그 옆에 그냥 앉아 있었다. 적어도 여기까지 그들은 읍에게 최고의 목회적 돌봄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이 입을 열면서 시작됐다. 읍이 자기 신세를 비판하며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와 달리 적어도 친구들은 그의 멋진 한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읍의 세 친구들은 상담이 아닌 논쟁을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민의 눈빛으로 읍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세 친구들이었다. 논쟁을 벌이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요, 동반자요, 상담가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것은 더 이상 위로와 공감과 이해가 아니었다. 상담이 아니었다. 마음에 맺힌 아픔을 조용히 들어주길 기대했던 읍은 더 큰 상처를 받았으리라. 아마도 그는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미숙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위로하려고 갔다가 논쟁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곤경에 처한 친구에게 더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낙심에 빠진 이들이 위로를 구할 때 말을 해야 한다는 충동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는 목회자들 특히 남성 목회자들에게 더욱 두

드러지는 모습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한 눈에 문제의 원인을 간파한 뒤 성경 말씀으로 해답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황홀한 상상을 한다. 이는 듣기보다 말하기에 빠른 목회자인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든 인간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 한때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뇌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할 때가 있었다. 그때 영적으로 지도해주시는 목사님께서 한 말씀 조언해 주신 것이 있다.

“인간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라!”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지혜의 가르침이리라. 그 말씀대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을 때 모든 것이 바람처럼 지나갔다. 1980년대 중반에 은성수도원의 엄두섭 목사님을 찾아뵈는 적이 있다. 그 어른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나는 목회자로서 고뇌하는 영혼의 감춰진 신음 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며 입을 열어 말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본다. 오늘날 우리는 읍의 불평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예수바보행전

성경을 깊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속의 인물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떡을 떤다고 했는데 그것은 배고픔을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사와 성찬을 거의 구별하지 않았습니 다. 빵을 떼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이야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히 12:2).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바보입니다.

둘째, 예수바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44~45절).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

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금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강제적 재산공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금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그들은 공동소유나 공평이나 평등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가 생길 경우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아닙니까. 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보처럼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습니 다. 여러분, 필요는 욕심과 다릅니 다. 자신은 필요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에는 엄청난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필요를 바로 보살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기근이나 재난 등으로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필요를 보고 바로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로’는 ‘올바로’라는 의미도 되지만 ‘즉시’라는 의미로도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후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해외선교에 헌신한 만큼 이웃의 필요를 보살피는 헌신도 같이 상승했으면 합니다. 해외선교를 줄여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도 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도 그만큼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NGO 더뎃진세상을 통해 세계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사회선교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돌보고 바로 보살피는 공동체가 예수바보공동체입니다.

셋째, 예수바보는 예수를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 다”(43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47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적이 이들을 통해 나타났습니 다. 그들이 갑자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 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 다. 그렇다고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를 했을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 다. 또 다른 반응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연 온누리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주차장이 없는 교회가 되어도 출석하시겠습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 주차장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바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는 일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세상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선했던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고, 세상의 필요를 바로 보살피고,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할 때는 예수바보교회, 예수바보행전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책

신간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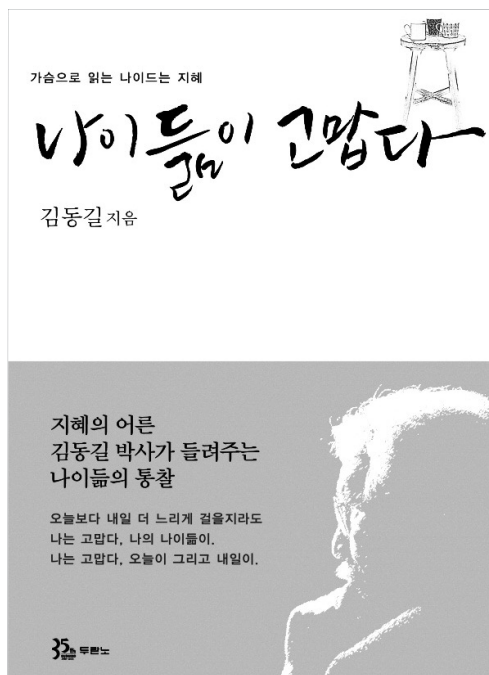
〈나이들이 고맙다〉

김동길 저 | 두란노 | 11,000원

흔히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곤 한다. 탄생이 봄이라면 죽음은 겨울이다. 김동길 박사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간 즉,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인생에 대해, 나이 들에 대해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언어로 나이들이 무엇인지를 해석했다.

이 책은 김동길 박사가 평생 묵상해 온 성경을 기본으로 노년의 삶을 조명한 내용을 담았다.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 인생의 성공과 실패, 소명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성경적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김동길 박사의 통찰력 있는 언어로 나이들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을 만족하라〉

한기홍 저 | 두란노 | 12,000원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 저자 한기홍 목사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한국 정치계를 주무르는 정치가가 되기를 소망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암울했다. 가난한 유학생으로 살아야 했다. 생활비를 벌기위해 주유소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준 전도지 한장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 한기홍 박사는 그 때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 진학을 결정했다.

가난한 유학생에서 5천여 성도들의 멘토가 되기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저자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만약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책을 읽어라.



세계를 깨우는 은혜한인교회의 영적 멘토

한기홍 목사의 **오늘을 만족하는 힘**

정필도 목사, 이동원 목사, 이영훈 목사, 강준민 목사, 김춘근 장로 강력 추천

35 두란노